

가르침

# 제 1 장 인연

## 제 1 절 네 가지 진리

1. 인간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며,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다 괴로움이다. 원한이 있는 자가 서로 만나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또한 구하나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야말로 집착을 떠나지 못하는 인생은 모두 괴로움이다. 이것을 ‘괴로움이라는 진리(苦聖諦)’라고 한다.

인생의 괴로움이 어째서 생기는가 하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붙어다니는 번뇌로부터 생긴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다. 그 번뇌를 파고 들어가 보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격한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욕망은 생에 대한 격렬한 집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탐하게 된다. 나아가 그 욕망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불사한다. 이것을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진리(集聖諦)’이라 말한다.

이 번뇌의 근본을 남김없이 멸해버리고 모든 집착을 여의면, 인간의 괴로움도 없어진다. 이것을 ‘괴로움을 멸하는 진리(苦滅

聖諦)’라고 말한다.

이 괴로움을 멀어버리는 경지에 들려면, 여덟 가지 바른 길(八正道)을 닦지 않으면 안된다. 여덟 가지 바른 길이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마음의 통일이다. 이들 여덟 가지는 욕망을 없애기 위한 ‘바른 길이라는 진리(道聖諦)’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진리를 완전히 제 것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는 누구나 번뇌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번뇌와 괴로움이 없어진 경지는 깨달음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다. 깨달음은 이 여덟 가지 바른 길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2. 도에 마음을 두는 사람도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혹의 길을 잠시도 쉬지않고 헤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사람을 깨달음의 눈을 얻은 사람이라 한다.

인연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도리를 바른 지혜로 명백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세상 어떤 성자도 바른 성자라면 모두가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밝게 이해했을 때, 여덟 가지 바른 길에 힘입어 사람은 비로소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세간과 다투지 않으며,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으며, 아첨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인생의 무상함을 잊지 않고, 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진다.

3. 도를 행하는 자는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어둠은 곧 사라지고 온 방안이 환하게 밝아진다.

도를 배워서 명확하게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알게 되면 지혜의 등불을 얻어 무지의 어둠은 소멸한다.

부처님은 오직 이 네 가지 진리를 보여서 사람들을 인도한다.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의하여 속절없는 이 세상에서 참다운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고, 의지처가 된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밝게 이해하면 모든 번뇌의 근원인 무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불제자들은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의하여 모든 가르침에 통달하고 모든 도리를 아는 지혜와 공덕을 갖추어 누구에게라도 거침없이 가르침을 설할 수가 있다.

## 제 2 절 불가사의한 인연

1. 사람들의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사람들의 깨달음에는 길이 있듯이 모든 것은 모두 그 연에 따라 생기고 연에 따라 멸하는 것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잎이 지는 일은 모두 연에 의해서 생기고 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다.

세상의 이 모든 현상은 연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에 의해 생겨나고 그러한 연이 변하면 멸한다.

인연

이 몸은 부모를 연으로 하여 태어났으며 음식물에 의하여 유지되며, 또 그 마음도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길러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과 마음은 둘 다 연에 의하여 성립되어 연에 의하여 변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물의 눈이 서로 이어져서 그물을 이루듯이 모든 것은 서로 이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그물의 눈이 그것만으로 그물의 눈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물의 눈은 다른 그물의 눈과 서로 이어져서 비로소 하나의 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각의 그물의 눈은 다른 그물이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

2. 꽃은 피는 연이 모임으로써 꽃은 피어나고, 잎이 지는 연이 모여서 낙엽이 진다. 홀로 피고 홀로 지는 것은 아니다. 연에 의하여 피고, 연에 의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해가는 법이다. 홀로 존재하는 것도, 항상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연에 의하여 생기고 연에 의하여 멸하는 것은 영원 불멸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변하고 항상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천지간에 움직일 수 없는 진실한 도리이며, 이것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 제3절 서로 의지하며

1. 그러면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 괴로움과 번뇌는 어째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부에 집착하고,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자아에 집착한다. 이 집착으로부터 고뇌가 생긴다.

태초부터 이 세계에는 여러가지 재앙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늡음과 병듸과 죽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도 따지고 보면 집착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나 괴로움이 되는 것이며, 집착만 떠나게 되면 모든 고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인연

또 이 집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연속하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명과 탐욕을 볼 수가 있다.

무명은 변하는 것들의 모습에 눈이 뜨이지 않고, 사물의 도리에 어두운 것이다. 탐욕은 얻을 수 없는 것을 탐내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다.

본디 사물에는 차별이 없는 것인데,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이 무명과 탐욕의 작용이다. 본디 사물에는 선악이 없는 것인데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이 무명과 탐욕의 작용이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빼돌어진 생각을 일으켜 어리석음 때문에 바르게 볼 수 없게 되고, 자아에 얽매여 잘 못된 행동을 하고 그 결과 미혹의 몸을 낳게 된다.

행위라는 밭에 마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무명의 흙으로 덮은 뒤에 탐욕의 비로 골고루 적시며 자아라는 물을 주고 사건을 더 하여 이 미혹을 낳는 것이다.

2. 그러므로 결국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과 번민이 있는 미혹의 세계를 낳는 것은 이 마음인 것이다.

미혹의 이 세상은 오직 이 마음으로부터 나타난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깨달음의 세계도 또한 이 마음에서 나타난다.

3. 이 세상에는 그릇된 견해 세 가지가 있다. 만약 이런 견해에 따라가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부정하게 된다.

첫째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은 모두가 운명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그것은 모두가 신이 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모든 것은 인과 연이 없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만약에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모두가 운명이며 행복과 불행도 모두 운명일 뿐이어서 운명 외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모두 공허한 일이 되어서 이 세상

인연

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다.

또한 신의 뜻이라고 하는 주장이나 인과 연도 없다는 우연설과 같은 주장도 같은 논리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그러면 악을 떠나 선한 일을 행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견해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 어떠한 일도 연에 의하여 생기고, 연에 의하여 멸하는 것이다.

## 제 2 장 사람의 마음과 실상

### 제 1 절 변해가는 것에는 실체가 없다

1. 몸과 마음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몸에는 실체는 없다. 이 몸은 인연의 더미인 까닭에 무상한 것이다.

만약 이 몸에 실체가 있다면 내 몸은 ‘이렇게 해라’ 혹은 ‘저렇게 해라’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벌할 것은 벌하고 상줄 것은 상주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병들거나 바라지도 않는데 늙어가니 한 가지도 내 몸에 대하여는 의도나 소망과는 상관없이 생각하는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도 실체가 없다. 마음도 또한 인연의 더미이며 항상 변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 실체가 있다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저렇

사람의 마음과 실상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대로 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바라지 않는데 악을 생각하고, 원치 않는데 선에서 멀어지니 어느 한가지도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

2. 이 몸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가, 아니면 무상한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무상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라고 묻는다면, 태어난 자는 누구나 머지 않아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안다면 누구나 괴로움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무상하고 변해가고 괴로움인 것을 ‘실체다’, ‘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음도 또한 그와 같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실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 마음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나라든가 ‘내것’이라는 관념을 떠나 있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마음이 ‘나’다 혹은 ‘내것’이다 라고 집착하는 것

에 지나지 않는다.

몸과 그것을 둘러싼 것도 연에 의하여 생긴 것이므로 끊임없이 변하여 잠시도 머무는 일이 없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또는 타오르는 등불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또 마음은 마치 원숭이처럼 잠시도 조용하게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움직인다.

지혜있는 자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서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몸과 마음이 함께 집착을 떠났을 때에 깨달음이 얻어진다.

**3.**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성취할 수 없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늙어가는 몸이면서 늙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둘째, 병든 몸이면서 병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셋째, 죽어야 할 사람이면서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넷째, 멀해야 할 것을 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다섯째, 다해야 할 것을 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 사람의 마음과 실상

세상의 범인들은 이 피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여 부질없이 고뇌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피하기 어려운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는다.

또 이 세상에 네 가지 진실이 있다. 첫째,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무명으로부터 생겨나는 것. 둘째,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하는 것이라는 것. 셋째,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하는 것이라는 것. 넷째, 자아도 자신의 소유도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은 모두가 무상하며 변하는 것이라는 것. 어떠한 것에도 자아가 없다는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고 안하고에 관계없이 언제나 정해져 있는 참된 이치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알고, 이런 일을 깨달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 제2절 마음의 구조

1. 미혹함도 깨달음도 마음에서 나타나며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마치 요술쟁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한 없이 변해가고, 그 작용도 한이 없다. 더럽혀진 마음으로부터는 더럽혀진 세계가 나타나고, 맑은 마음으로부터는 맑은 세계가 나타나므로 마음 밖의 세계도 마음에 따라 한 없이 변화한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은 바깥 세계를 만들어 낸다. 부처님이 만드는 세계는 번뇌를 떠나서 청정하고, 사람이 만든 세계는 번뇌에 의하여 더럽혀져 있다.

마음은 숨씨 좋은 화가처럼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 이 세상에 마음의 작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마음처럼 부처님도 그러하고, 부처님처럼 사람들도 그러하다. 따라서 모든 것을 그려내는 데에 있어서 마음과 부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부처님은 바르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는 사람은 진실한 부처를 보게 되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마음은 늘 추억하고 두려워 하고 슬퍼한다. 이

사람의 마음과 실상

미 일어난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도 추억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한다.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는 무명과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무명과 탐욕으로부터 미혹한 세계가 생겨나며, 미혹한 세계의 여러 인연도 결국은 모두 마음 한가운데에 있다.

삶과 죽음도 오직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므로, 미혹된 삶과 죽음에 관계되는 마음이 멀하면, 미혹된 삶과 죽음도 사라진다.

미혹한 세계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며, 미혹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미혹한 세계가 된다. 마음을 떠나서 미혹한 세계가 없음을 알면, 더러움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 인도되고, 마음에 이끌리며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 미혹된 마음에 의하여 괴로움에 가득 찬 세상이 나타난다.

3. 모든 것들이 모두 마음에 의해 이끌리고, 마음으로 이루

어져 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마치 소에게 수레가 이끌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착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악한 행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악한 일을 했기에 괴롭고 다음 세상에서는 그 악의 과보를 받아서 더욱 괴로워 한다. 착한 행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했기에 즐거워 하고, 다음 세상에서는 그 착한 과보를 받아서 더욱 즐겁게 살아간다.

이 마음이 흐리면 그 길은 평탄해지지 않아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고통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음이 청정하면 그 길은 평탄하고 평안해진다.

티없이 청정한 몸과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본위의 불순한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악마의 그물을 벗어나 부처님의 대지를 걷는 자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평안을 얻어서 더욱 노력하여 밤낮없이 마음을 닦을 것이다.

### 제3절 진실한 모습

1.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인연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차별은 없다. 차별을 보는 것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편견 때문이다.

넓은 하늘에는 동서의 구별이 없는데 사람들이 동서로 차별하여 ‘동쪽이다 서쪽이다.’ 라며 집착한다.

수는 본래 하나부터 무한의 수에 이르기까지 각기 완전한 수이고, 양에는 많고 적음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욕심으로 재서 많고 적음의 차별을 한다.

본래 생도 없고 멸도 없는데 생사의 차별을 하며, 또 인간의 행위 그 자체에는 선도 없고 악고 없는데 선악의 차별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은 이런 차별을 떠나셨기에 세상은 하늘에 뜬 구름과 같고 허깨비와 같은 것이어서, 버리는 것이나 취하는 것이나 다 부질없다고 보시며, 외형의 유희와 마음이 짓는 모습을 여의고

있다.

2. 사람은 마음으로 헤아려서 모든 것에 집착한다. 부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수명에 집착한다.

있음과 없음, 선과 악, 율음과 그림 모든 것에 집착하여 미혹을 거듭하며 고뇌를 불러온다.

어떤 사람이 오랜 여행 끝에 어느 곳에서 큰 강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강의 이쪽 언덕은 위험하나 저쪽 언덕은 안전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여 뗏목을 만들어 타고, 안전하게 저쪽 언덕에 이를 수가 있었다. 도착한 뒤에 그는 ‘이 뗏목은 나를 안전하게 이쪽 언덕으로 건네 주었다. 이 얼마나 고마운 뗏목인가. 그러니 이 뗏목을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목적지까지 가지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였다. 이 때 이 사람은 뗏목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않을 것이다.

이 비유는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집착할 것이 아니라,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하물며 바르지 못하고 소용없는 일을 버리는 것이야 새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

사람의 마음과 실상

다.

3. 모든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따라서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있고 없음의 범주를 떠나 있으므로,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생기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다.”라고 설한다. 즉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물 그 자체의 본성은 실재성이 없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물의 모습을 보고 이것에 집착하는 것은 미혹한 마음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만약에 사물의 모습을 보아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미혹은 생기지 않는다. 깨달음은 이 참된 도리를 보고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진실로 세상은 꿈과 같고, 재물도 또한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높고 낮음과 같이 보이기는 하나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4. 무량한 인연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영구히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상견이라하며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또한 완전히 없어 진다고 믿는 것은 단견이라하며 이것도 잘못된 견해이다.

이 단(斷), 상(常), 유(有), 무(無)는 사물 자체의 모습은 아니고, 사람의 집착으로 본 모습이다. 모든 것은 본래 이런 구별과 집착의 모습을 떠나 있다.

사물은 모두 인연에 의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변한다. 실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다. 변하기 때문에 환상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으나 그 모습 그대로 진실하다. 변하는 그대로 영원불변한 것이다.

하천은 사람에게는 하천으로 보이나, 물을 불로 보는 아귀에게는 하천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천은 아귀에 있어서는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사람에게는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모두 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허깨비와 같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실상

그렇지만 이 허깨비와 같은 세계를 떠나서 진실한 세상도 영원불변한 세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짜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요, 실제의 세상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잘못의 근원은 세계 위에 있다고 보고 있으나, 세계가 이미 환상이라면 환상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에게 잘못을 생기게 할 리가 없다. 잘못은 이 도리를 모르므로 가짜 세상이라 생각하고 실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지혜있는 사람은 이런 도리를 깨달아서 환상을 환상으로 보기 때문에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난다.

#### 제 4 절 치우치지 않는 길

1. 도를 닦는 자로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치우친 삶이 있다. 첫째, 욕망에 저서 탐욕에 빠진 비천한 삶이며, 둘째 부질없이 자신의 심신을 괴롭히는 고행의 삶이다.

이 두 가지 치우친 삶을 떠나서 마음의 눈을 열고 지혜로 나아가며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도의 삶이 있다. 이 중도의 생활이

란 무엇인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노력, 바른 생활, 바른 기억, 바른 마음의 통일이라고 하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멸하는 것이므로 유와 무를 떠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유로보고 혹은 무로 보나, 바른 지혜로 보면 유와 무를 떠나 있다. 이것이 중도의 바른 견해이다.

2. 나무 도막 하나가 큰 강을 떠다니고 있다고 하자. 그 나무가 좌우의 언덕에 접근하지 않고, 종류에 가라 앉지도 않고, 육지로 올라오지도 않고, 사람에게 건져지지도 않고, 소용돌이에도 말려들지 않고, 안에서부터 썩지도 않는다면 언젠가 그 나무 도막은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 나무도막의 비유처럼 안에도 밖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유나 무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율음과 그림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미혹을 떠나 깨달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중도를 따르는 것이다.

도를 닦는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양극단을 떠나 항상 중도를 걷는 것이다.

## 사람의 마음과 실상

모든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꿈과 같이 정해진 성질이 없는 것임을 알아서 집착하지 말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느 것에도 속박되어서는 안된다.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움켜쥐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도를 닦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태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있음과 없음, 안과 밖,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가리는 그 어떤 견해의 뒤도 쫓지 않는다.

사람이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곧 미혹한 삶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자는 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공정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삶인 것이다.

3. 깨달음도 그 자체로 본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깨달는다는 것은 있지만 깨달아지는 것은 없다.

미혹이 있으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미혹이 없어지면 깨달음도 없어진다. 미혹을 떠나서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을 떠나서도 미혹은 없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더욱 장애가 된다. 어둠이 있기에 비추는 것이 있고, 어둠이 없어진다면 비추는 것도 없어진다. 비추는 것과 비추어지는 것이 다같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도를 닦는 자는 깨달았으면서도 깨달음에 머물지 않는다. 깨달음에 집착한다는 것은 여전히 미혹하기 때문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은 미혹한 그대로 깨달음이며, 어둠 그대로 빛이다. 모든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 될 때까지 완전히 깨달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4. 사물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을 공이라 한다.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은 실체가 없고,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고, 어떤 이원성도 없고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서로 관계하여 성립되고, 서로 모여 존재하는 것이다. 홀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실상

사물에는 빛과 그림자, 길고 짧음, 흑과 백이 있는 것처럼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이 오직 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라 한다.

또 미혹을 떠나서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을 떠나서 미혹이 없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람은 언제나 사물의 생하는 것과 멸하는 것을 보고 있으나, 사물에는 본래 생한다는 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멸하는 일도 없다.

사물의 이런 진실한 모습을 보는 눈을 얻어서 사물에 생멸의 둘이 없음을 알고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원래 자아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것이 있을 리가 없다. 자아와 내것이 없음을 알아서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청정함과 오염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두 가지에 집착한다. 그러나 사물에는 본래 청정한 것도 없고, 오염된 것도 없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집착하여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선과 악을 본래 별도로 생각하여 선악에 얽매이고 있다. 그러나 오직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깨달음의 도에 든 사람은 이 선악은 본래 따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는 것이다.

사람은 불행을 두려워하여 행복을 바란다. 그러나 진실한 지혜를 갖고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불행의 상태가 그대로 행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불행이 그대로 행복이라고 깨달아서 심신에 엉겨붙어 자유를 속박하는 미혹도 진실한 자유도 특별히 없음을 알면, 이런 사람은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 미혹과 깨달음, 진실과 거짓,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상반된 두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에는 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알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실상

다. 사람이 이런 말이나 분별하는 바를 떠났을 때, 진실한 공을 깨칠 수가 있다.

6. 이를테면 연꽃이 맑은 고원이나 물에서는 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미혹을 떠나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견해나 미혹에서 부처의 씨앗이 생겨나는 것이다.

잠수부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의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값도 알 수 없는 진귀한 보물을 얻을 수가 없듯이, 미혹이라는 진흙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깨달음이라는 보물을 얻을 수가 없다. 산과 같이 큰 자아에 대한 집착을 갖는 자야말로 비로소 도를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그러다 마침내 깨달음도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선인이 칼산에 올라도 다치지 않고, 자기의 몸을 불 속에 던져도 타기는 커녕 상쾌함을 느꼈다고 하는 것처럼 도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명예와 이익과 욕망의 칼산이나 증오의 불 속에서도 깨달음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올 것이다.

7.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반되는 두 가지 것을 떠나서 그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는 것이다. 만약에 상반되는 둘 중의 하나를 취하여 집착하면 비록 그것이 선하고 바르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된다.

만약에 사람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생각에 빠진다면, 이것도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것이며, 또 만약에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것도 당초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만일에 또 사람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영원히 괴로움을 떠날 수가 없다. 만약에 자아가 없다고 집착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며 도를 닦아도 효과가 없다. 또 모든 것은 오직 괴로움이라고만 사로잡혀도 잘못된 생각이며, 모든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이고, 이 두 가지 치우침에서 떠나 있다.

## 제 3 장 깨달음의 씨앗

### 제 1 절 청정한 마음

1. 사람에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마음의 흐름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현명한 사람도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착한 성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악한 성질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힘든 사람도 있다. 이를테면, 청, 적, 황, 백의 가지각색의 연못이 있는데, 물 속에서 나서 물 속에서 커서 물 표면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수면에 머물러 있는 연도 있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물에 젖지 않는 연이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차별 위에 또 남녀의 구별이 있으나 사람의 본성으로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자가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이 여자도 또한 도를 닦으면 해야 할 마음의 길을 거쳐서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코끼리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려면, 신념과 건강을 갖고 근면하며 거짓이 없고, 그 위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부처님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역시 이 다섯 가지가 없어서는 안된다.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남자도 여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

는데 긴 세월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에게서는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2.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부처님을 보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는다.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생사의 터전을 오늘날까지 떠돌아 다니게 만든 것도 또한 이 눈과 마음이다.

어떤 국왕이 침입한 적을 토벌하려 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적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하듯이, 이제 미혹함을 버리려 할 때도 먼저 그 원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이 실내에서 눈을 뜨면, 먼저 방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음에 창을 통하여 밖의 경치를 본다. 방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밖에 있는 것만을 보는 눈은 없다.

그런데, 만일 이 몸 속에 마음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몸 속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인데, 사람들은 몸 밖의 것만을 잘 알고 있고, 몸 속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깨달음의 씨앗

또 만약에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하면,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서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은 모르고, 몸이 아는 것을 마음은 모를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이 느끼고, 몸에 느끼는 것을 마음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마음의 본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3. 원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먼 옛날부터 업의 고삐에 묶여서 미혹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근본을 모르기 때문이다.

첫째, 생사의 근본인 미혹한 마음을 자기의 본성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둘째 깨달음의 본성인 청정한 마음이 미혹한 마음 뒤에 숨겨진 채,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일이다.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들면, 눈은 이것을 보고, 마음은 이 일을 안다. 그러나 그 아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은 아니고 분별하는 마음이다.

분별하는 마음은 욕망에서 생기고 자신의 형편을 분별하는 마

음이며, 연에 닿아서 생기는 마음이어서 진실한 본체가 없고 변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실체가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미혹이 생긴다.

다음에 이 주먹을 펴면 마음은 주먹이 펴져 있음을 안다. 움직이는 것은 손이겠는가, 마음이겠는가,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닌가.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고, 또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도 움직인다. 그러나 움직이는 마음은 마음의 표면이지 마음의 근본은 아니다.

4. 모든 사람들에게는 청정한 본심이 있다. 그것이 밖의 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미혹의 티끌로 덮여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미혹한 마음은 객이지 주는 아니다.

달은 잠시 구름에 덮혀도 구름에 더럽혀지지도 않고, 또 움직여지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떠다니는 티끌과 같은 미혹한 마음을 자기의 본성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또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깨달음의 본성에는 떠서 진실한 자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떠다니는 미혹

깨달음의 씨앗

한 마음에 사로잡혀 뒤바뀐 견해에 쫓겨 있으므로 사람은 미혹의 거리를 해매는 것이다.

마음의 미혹이나 오염은 욕망과 그 변화하는 외계의 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이 연의 가고 오에 관계없이 영구히 움직이지 않고, 멸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의 본체이고 주인인 것이다.

객이 떠났다고 해서 여관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연에 의하여 생멸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기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외부의 연에 의하여 변해가는 분별하는 마음이 그 본체는 아니다.

5. 여기 태양이 솟으면 밝아지고 태양이 지면 어두워지는 강당을 생각해보자.

밝음은 태양에서 오고 어둠은 밤에서 온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밝음이나 어둠을 아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해야 할까. 그것은 마음의 본성이나 본체에서 온다고 할 수 밖에 다른

길은 없다.

태양이 떠올라서 밝다고 보는 것도 한 때의 마음이며, 태양이  
저서 어둡다고 보는 것도 한 때의 마음이다.

이와 같이 명암이라는 밖의 연에 끌려서 명암을 아는 마음이  
생기나 명암을 아는 마음은 한 때의 마음이지 마음의 본체는 아  
니고, 그 명암을 아는 힘의 근본은 마음의 본체이다.

밖의 인연에 끌려 생멸하는 선악과 애증의 감정은 사람의 마  
음에 쌓인 오염에 의하여 일어나는 한 때의 마음인 것이다.

번뇌의 티끌에 싸여 있으면서도 물들지도 더럽혀지지도 않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있다.

둥그런 그릇에 물을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네모가 된다. 그러나 본래 물에 둥글거나 네모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잊고 물의  
형태에만 얽매어 있다.

깨달음의 씨앗

사람은 선과 악을 보고, 좋고 싫어함을 느끼고, 유과 무를 생각하며, 그 생각의 부림을 받고, 그 견해에 묶여 밖의 것을 쫓아다니며 괴로워 하는 것이다.

속박당한 가공적이고 거짓된 견해를 밖의 연에 돌리고, 속박당한 적이 없는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오면, 몸과 마음은 번뇌에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를 얻을 것이다.

## 제2절 숨은 보물

1. 청정한 본심이란 말을 바꿔서 말하면 불성이다. 즉 부처가 될 씨앗이다.

부싯풀에 렌즈를 들이대고 태양빛 아래에서 불을 일으킬 때 과연 그 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태양과 렌즈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태양의 열기가 렌즈를 연으로 하여 부싯풀에 나타난 것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 또 아무리 태양이 내려 쪼여도 부싯풀에 불이 붙는 성질이 없다면 부싯풀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

이제 부처를 낳는 근본인 불성 즉 부싯풀에 부처님의 지혜의

렌즈를 대면 부처의 불(火)은 불성이 열리는 믿음의 불로서 사람들 즉 부싯풀에 불길이 붙게 된다. 부처님은 그 지혜의 렌즈를 들어 세계에 대게 되므로 온 세상에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다.

2.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의 불성에 등을 돌리고 번뇌의 티끌에 이끌려 사물의 선악의 모습에 얽매어 자유롭지 못하다며 괴로워하고 한탄한다.

왜 사람들은 본래 깨달음의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거짓을 낳고 불성의 빛을 감추며, 미혹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

옛날에 어떤 사나이가 어느날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얼굴과 머리가 비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것은 얼굴이나 머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거울을 뒤집어 놓고 이것들이 없어진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러 하나 이르지 못한다 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또 필요도 없는 일이다. 깨달음 속에는 미혹

깨달음의 씨앗

이 없지만 한 없이 길고 긴 시간 동안 밖의 탐욕의 티끌에 이끌려 망상을 그려내고 그 망상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쌓여온 망상이 그치면 깨달음은 스스로 돌아오며, 깨달음을 떠나서 망상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한번 깨닫기만 하면 본래 망상도 없고 또 깨달아 진 것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니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3. 이 불성은 다하는 일이 없다. 가령 축생에 태어나고, 아귀가 되어 고통을 받거나 지옥에 떨어져도 이 불성은 다하는 일이 없다.

더러운 욕신 속에서도 더럽혀진 번뇌의 밑바닥에도 불성은 제 빛에 휩싸인 채 결코 소멸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이다.

4. 옛날에 어떤 사람이 친구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버렸다. 그 때 친구가 급한 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친구는 그 사람의 장래를 염려하여 값진 보석을 그 사람의 옷깃에 넣어 두었다. 그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술에서 깨어나 타국을 방랑

하다가 굶주리고 헐벗으며 몹시 힘들게 지냈다. 세월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는데, 그 때 그 친구는 “자네, 옷깃에 든 보석을 쓰도록 하게.” 라고 일러 주었다.

이 비유처럼 사람은 생사문제로 고통받으면서 헤메고 있지만 불성이라는 값진 보석은 탐, 진, 치라는 번뇌의 옷깃에 들어 있어도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든 부처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 까닭에 부처님은 사람들을 간파하여 “장한 일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부처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음에 뒤덮여 모든 것들을 거꾸로 보고 자기의 불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그 망상을 떠나게 하고, 본래 부처와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님을 가르치시고 알게 한다.

5. 여기서 말한 부처님이란 이미 완성된 부처이며, 사람들은 장차 이루게 될 부처일 뿐 그 밖에는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깨달음의 씨앗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부처라고 하여 이미 부처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미 도를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불성이 있다 하여도 닦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 옛날에 어떤 왕이 많은 소경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다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해 보도록 하였다. 그 때에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큰 당근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큰 부채처럼 생겼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절구통처럼 생겼다고 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새끼줄처럼 생겼다고 하여 어느 한 사람도 코끼리를 알아 맞춘 사람이 없었다.

사람을 보는 데도 이와 같아서 사람의 한 쪽만 봐서 그 본성인 불성을 알아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에 의해서도 없어지지 않고, 번뇌 속에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멀하지 않는 불성을 찾기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는 찾을 길이 없다.

### 제3절 집착을 떠나서

1.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가르침에서 말하는 실체적인 자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그것은 잘못이다.

자아라는 생각은 집착심에 의하여 생각할 수 있기는 하나 깨달은 사람에게는 자아는 부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집착이며, 불성은 열어 나타내지 않으면 안되는 보화이다. 불성은 자아와 닮은 것 같으면서도 ‘내가 있다’ 라든가 ‘내것’ 이라든가 할 때의 자아는 아니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뒤바뀐 견해이고, 불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뒤바뀐 견해이다.

예를 들어 어린애가 병에 걸려 의사에게 보일 때, 의사는 약을 주며 이 약이 다 소화되기까지는 젖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처방한다고 하자.

깨달음의 씨앗

그러면 어머니는 젖꼭지에다 쓴 것을 발라 애기가 젖먹기를 싫어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 약이 다 소화되면 젖꼭지를 씻어 버리고 애기에게 물린다.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영원불변하는 자아는 없다고 설했으며, 그런 잘못된 견해를 없앴으므로 다시금 불성이 있다고 설한 것이다.

자아에 대한 집착은 미혹을 부르는 것이며, 불성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집에 황금의 상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어렵게 사는 여인을 가엾게 여겨, 그 황금상자를 파내서 주는 것처럼 부처님은 사람들의 불성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인다.

2. 그렇다면 사람들은 모두 이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왜 빈 부귀천의 차별이 있으며 서로 죽이거나 속이는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궁궐에서 일하는 어떤 힘센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날 그가 미간에 자그마한 금강주옥을 장식한 채로 씨름을 하다가 상대방이 그 이마를 치는 바람에 주옥이 살 속으로 들어가 부스럼이 생겼다. 이 사람은 주옥이 있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부스럼을 고치려고 의사에게 보였다. 의사는 한눈에 그 부스럼은 살 속에 박힌 주옥 때문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

사람들의 불성도 번뇌의 티끌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으나, 좋은 스승에 의하여 다시금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성은 있어도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가려지고 업보에 묶여 미혹에 빠진다. 그러나 불성은 실제로는 잃어버리거나 파괴되지도 않아서 미혹만 제거하면 또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힘센 사람이 의사가 끄집어 낸 구슬을 본 것처럼 사람들도 불광에 의하여 불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3. 적, 백, 흑과 여러 가지 털색을 가진 어미소들이 있다고

깨달음의 씨앗

하자. 하지만 젓을 짜면 모두가 흰색이듯이 아무리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업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에 귀한 약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수풀 속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옛날에 한 현인이 그 향기를 따라 있는 곳을 알고 통을 만들어 그 속에 담아 두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은 산사태로 샘물에 파묻혔고 통속에 든 약은 썩어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린 곳마다 맛이 뒤섞이는 바람에 그 맛은 제각각 달라졌다.

불성도 이 비유처럼 깊이 번뇌의 수풀에 덮여 있으므로 사람들은 이것을 손쉽게 찾아내지 못한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그 수풀을 헤치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불성의 맛은 한 가지인데, 번뇌때문에 여러 가지 맛을 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4. 이 불성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므로 파괴할 수 없다. 차라리 모래나 자갈에 구멍을 낼수는 있을지언정 금강석에 구멍을 뚫을 수는 없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부서지는 일이 있어도 불성은 부서지지 않는다.

불성은 실로 가장 훌륭한 인간의 특질이다. 세상에는 남자는 훌륭하고 여자는 뒤떨어진다는 편견도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 불성에는 차이가 없다.

황금의 광석을 녹여서 그 찌꺼기를 버리고 잘 연금하면 귀한 황금이 된다. 마음의 광석을 녹여서 번뇌의 찌꺼기를 빼버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다 동일한 불성을 열어 나타낼 수가 있다.

## 제 4 장 번뇌

### 제 1 절 마음의 티끌

1. 불성을 덮어버리는 번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도리에 미혹된 이지적인 측면의 번뇌이고, 둘째 실제에 미혹된 감정의 번뇌이다.

이 두 가지 번뇌는 모든 번뇌의 근본적인 분류이나, 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명과 애욕이다.

이 무명과 애욕은 모든 번뇌를 낳는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야말로 모든 번뇌의 원천인 것이다.

무명이란 무지를 말하는 것인데, 사물의 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애욕이란 격한 욕망으로 생에 대한 집착의 근본이며, 보거나 듣는 것의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죽음을 바라는 욕망이기도 하다.

이 무명과 욕망을 바탕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잘못된 견해, 원한, 질투, 아부, 자만, 오만, 비방, 방종 등 그 밖에 여러가지 번뇌가 생겨난다.

2. 탐욕이 생기는 것은 마음에 만족감을 채우려는 바르지 못한 생각을 품기 때문이다. 성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고,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은 그 무명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모르는데서 일어난다.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세상의 세가지 불(火)이라 말한다. 탐욕의 불은 욕망에 빠져 진실한 마음을 잃은 사람을 태우고, 성냄의 불은 성을 내며 생명있는 것의 목숨을 해치는 사람을 태우며, 어리석음의 불은 마음이 미혹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을 태운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온갖 불로 타오르고 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생로병사의 불, 걱정, 슬픔, 괴로움, 고통의 불 등 갖가지의 불에 의하여 활활 타고 있다. 이 번뇌의 불들은 자신을 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사람을

번뇌

몸, 입, 뜻의 세 가지 악행으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이 불들에 의하여 생긴 상처의 고름에 닿으면 독이 퍼져 끝내 악도에 떨어지고 만다.

3. 탐냄은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냄은 만족을 얻지 못하는 마음에서, 어리석음은 부정확한 생각으로부터 생겨난다. 탐냄은 허물은 적으나, 이것을 떠나기는 쉽지 않고, 성냄은 허물은 크나 이것을 떠나기는 쉬운 것이다. 어리석음은 허물도 크고, 여기서 떠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대상이 마음에 들어도 그 모습을 바르게 생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마음을 자제하여 부처님의 자비심을 키우며 이 세 가지 불을 꺼야만 한다. 사람들이 바르고 맑으며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자비심으로 넘쳐 있다면, 번뇌에 미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4.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뜨거운 열과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열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넓고 아름다운 방안에 누워 있어도, 그 열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할

수 밖에 없다.

이 세 가지 번뇌가 없는 사람은 추운 겨울밤에 나무잎만 얇게 깔 침상에서도 기분 좋게 잘 수 있고, 무더운 여름밤에 문이 꼭 닫혀진 좁고 답답한 방안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의 슬픔과 괴로움의 근원이다. 이 슬픔과 괴로움의 근원을 끊는 것은 계와 마음의 통일과 지혜이다. 계는 탐욕의 더러움을 없애버리고, 바른 마음의 통일은 성냄의 더러움을 없애고 지혜는 어리석음의 더러움을 없애버린다.

5.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그것은 꼭 짊어짐을 마신 사람이 오히려 갈증을 더 느끼는 것과 같다. 그는 언제까지나 만족하는 일이 없고, 갈증은 점점 더해갈 뿐이다.

사람은 그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나, 불만만이 쌓여서 초조하게만 된다.

사람은 결코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거기에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어서 마음이 미칠 것만 같아 진다.

번뇌

사람은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욕심때문에 싸운다. 왕과 왕, 신하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 형과 아우, 언니와 누이, 친구와 동지끼리 이 욕망 때문에 서로 눈이 어두어져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인다.

또 사람은 욕심 때문에 몸을 망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간음한다. 때로는 잡혀가서 온갖 형벌을 받고 여러가지 고통을 받는다.

또 사람은 한 때의 만족이 종국에는 불행과 고통이 될 것을 잘 알면서도 욕망 때문에 몸과 입과 뜻으로 자꾸만 죄를 지으니 살아서도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죽어서 후세에도 암흑의 세계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받는다.

## 6. 애욕은 번뇌의 왕이라 온갖 번뇌가 이를 따른다.

애욕은 번뇌의 새싹을 움트게 하는 습지이며, 여러 번뇌를 낳는다. 애욕은 선을 잡아먹는 귀녀(鬼女)여서 모든 선을 멸하게 한다. 애욕은 꽃밭에 숨어든 독사며, 욕망의 꽃을 탐내는 사람은 그 독사에 물려 죽는다. 애욕은 나무를 시들게 하는 덩굴이

니, 사람의 마음을 감아 사람의 마음 속의 선한 물을 빨아버린다. 애욕은 악마가 던진 먹이여서 사람은 이것에 걸려 악마의 길로 빠져든다.

끓주린 개에게 피를 바른 뼈다귀를 주면, 개는 그것을 뜯느라 애를 쓰다가 끝내 지쳐 쓰러지고 만다. 애욕에 빠진 사람도 뼈를 뜯는 개처럼 기진할 때까지 탐닉한다.

한 조각의 고기 덩어리 때문에 짐승들은 서로 다투고 물어 뜯는다. 횡불을 들고 바람을 마주보고 선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운다. 고기 조각을 놓고 싸우는 짐승처럼, 횡불로 제 스스로를 태우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제 몸을 태운다.

7. 밖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 있으나 안에서 자라나는 독화살은 막을 길이 없다.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오만은 모두 안에서 자라난 독화살이다. 이 독화살은 마음 속에서 생겨 제 마음을 치명적인 독으로 물들인다.

마음에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을 때에는 입으로는 거짓

번뇌

말과 욕설과 이간질하는 말과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몸으로는 살생과 도둑질과 빼돌어진 애욕을 일으키게 된다.

뜻으로 행하는 세 가지 악한 업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한 업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세 가지 악한 업을 합하여 십악업이라 한다.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게 되면, 어떠한 나쁜 일이라도 범하게 된다. 나쁜 짓을 행하기에 앞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나쁜 짓을 보통으로 하게 된다.

사람의 탐냄과 애욕, 두려움과 성냄은 모두 어리석음에서 오며, 사람의 불행이나 어려움도 또한 어리석음에서 온다. 어리석음은 실로 이 세상의 가장 지독한 독이다.

8.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괴로움을 불러들인다. 번뇌와 업과 괴로움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바퀴와 같다.

이 바퀴의 회전에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윤회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을 모른다. 영겁토록 빙빙도는 윤회의 수레바퀴에 실려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다음의 삶으로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해가는 것이다.

끝없는 윤회 사이에서 한 사람이 태워버린 자신의 뼈를 쌓아 올린다면 산보다도 높아지고, 또 그 동안에 먹은 어머니의 젖을 모은다면 바닷물보다도 더 많으리라.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고는 하나 번뇌의 진흙이 너무나도 깊어 그 새싹이 트기가 쉽지 않다. 불성의 싹이 트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통과 비참한 삶은 끝이 없다.

사람이 탐욕에 굴복하는 한 분노와 어리석음과 사악한 행위가 쌓이고 이런 상황이 끝없이 재생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악의 근원이 사라지고 이 괴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 제2절 사람의 성질

1. 사람의 성질은 꼭 입구를 찾을 수 없는 대밭처럼 알기 어렵다. 이것에 비하면 짐승의 성질은 오히려 알기 쉽다. 이렇

번뇌

게 알기 어려운 사람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고행한다. 둘째, 남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거나 도둑질 한다거나 그 밖에 여러가지 잔혹한 일을 한다. 셋째, 스스로 괴로워함과 동시에 남도 괴롭히는 사람이다. 넷째, 자기 스스로도 괴로워하지 않고, 또 남도 괴롭히지 않는 사람으로 욕망을 떠나 평안하게 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으며 맑은 행을 하는 사람이다.

2. 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바위에 새긴 글자와 같은 사람과 모래 위에 쓴 글자와 같은 사람과, 물 위에다가 쓴 글자와 같은 사람이다.

바위에 새긴 글자와 같은 사람이란 때때로 성을 내어, 그 성념을 오래 지속하고, 새겨놓은 글자처럼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쓴 글자와 같은 사람이란 화를 종종내나 그 화가 모래 위에 쓴 글자처럼 빨리 없어지는 사람이다.

물 위에다가 쓴 글자와 같은 사람이란 물 위에 글자를 써도

흘러가버려 그 형태를 남기지 않듯이 남의 욕설이나 불쾌한 말을 들어도 조금도 마음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온화한 마음이 넘쳐있는 사람이다.

또 이 밖에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그 성질이 알기 쉽고, 오만하며, 경솔하여 항상 침착성이 없는 사람이다. 둘째, 그 성질을 알기 어렵고 겸손하여, 모든 일에 착실하며 욕망을 참는 사람이다. 셋째, 그 성질을 도저히 알 수 없고, 자신의 번뇌를 멀어버린 사람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으나, 실은 사람의 성질을 쉽게 알 수는 없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 성질들을 알아서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나타낸다.

### 제3절 현실의 인생

1. 여기에 인생을 비유한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강물의 흐름에 따라 배를 띄워 내려간다고 하자. 강 언덕에 선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물살을 타고 기분 좋게 내려가는 것을 멈추어라, 그 하류에는 물살이 세고 소용돌이가 있으며 악어와 무서운 두역시니(夜叉)가 사는 못이 있다. 그대로 흘러 내려가면 죽고

번뇌

말 것이요.”라고.

이 비유에서 ‘강물의 흐름’이란 애욕의 생활을 말하며, ‘기본 좋게 흘러 내려간다’ 함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며, ‘물살이 세다’라고 함은 성냄과 번뇌하는 생활을 나타내며, ‘소용돌이 친다’ 함은 쾌락을 나타내고, ‘악어와 무서운 두역시니가 사는 못’이라 함은 죄로 말미암아 파멸해버리는 생활을 가리키며, ‘강 언덕에 선 사람’이란 부처를 말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도망을 쳤다. 쫓아오는 사람들이 뒤에서 바짝 따라오자 그는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았다. 그러다가 문득 밑을 보니 오래 된 우물이 있고, 거기에는 등덩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등덩굴을 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려는데, 그 밑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등덩굴을 목숨줄로 하여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드디어 어깨가 빠질 것만큼 아파진다. 그 위에 흰 쥐와 검은 쥐 두마리가 나타나 그 덩굴을 갉기 시작한다.

등덩굴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밑으로 떨어져서 뱀의 먹이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때 문득 머리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별집에서 꿀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입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자신이 위험한 지경에 놓였는 지는 까맣게 잊고 꿀맛에 정신이 팔리고 말았다.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며, ‘쫓아오는 사람’이나 ‘독사’는 그 욕망의 근본이 되는 자신의 욕신을 말하며, ‘우물의 등덩굴’이라 함은 지속되는 사람의 생명을 말하며, ‘흑백의 두마리 쥐’는 세월을 나타내며, ‘꿀물’이란 눈 앞에 펼쳐지는 욕신의 쾌락을 뜻한다.

2.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자. 왕이 한 상자속에 독사 네 마리를 넣고, 한 사나이에게 그 독사를 키우도록 명하기를, 만일 한 마리라도 성내게 하면, 그 대신 사나이의 목숨을 빼기로 하였다. 사나이는 왕의 명령이 두려워 상자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것을 안 왕은 다섯의 신하에게 명하여, 그 뒤를 쫓게 하였다. 그 신하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달콤한 말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사나이는 이것을 믿지 않고, 또 다시 도망가서

번뇌

어떤 마을로 들어가 숨을 집을 찾았다.

그 때 하늘에서 들리는 말이 이 마을에는 사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오늘 밤에는 여섯의 도적이 와서 덮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놀라서 또 그곳으로부터 도망쳤다. 그의 앞 길에는 거센 물결을 일으키며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이 있었다. 강을 건너기가 여간 어렵지 않으나, 이쪽이 더 두려워서 뗏목을 만들어 타고 가까스로 건너가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네마리 독사가 든 상자’란 땅, 물, 불, 바람의 사대요소로 이루어진 육신을 말한다. 이 몸은 육망의 근본이며 마음의 적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몸을 피하여 도망쳤던 것이다.

‘다섯의 신하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역시 육신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를 뜻한다. 즉 색깔과 형체, 감정, 지각, 의지, 의식 이라는 다섯 가지이다.

‘숨을 안전한 집’이란 인간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뜻하며, ‘여섯의 도적’이란 이 감각기관에 대한 여섯 가지 대상을 말한다. 이와 같이 관능의 위험한 것을 보고, 또 도망쳐서 ‘물결이

거센 강을 봤다' 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소용돌이 치는 생활을 말한다.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번뇌의 강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뗏목으로 삼아 평안한 피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세상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구할 수 없고, 자식도 어머니를 구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즉 큰 화재와 큰 수해와 큰 도난이다. 그러나 이 세 경우에도 때로는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절대로 구해줄 수 없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것은 늙음의 두려움과 병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이다.

어머니가 늙어가는 것을 자식이 어떻게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자식이 앓는 모습에 안타까워 우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의 대신에 앓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모자지간이라 해도 자식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은 대신할 수가 없는 법이다. 아무리 끈직하게 사랑하는 모자 사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서로

번뇌

도울 수가 없는 것이다.

4.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죄인과 염라대왕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너는 인간세계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의 천사를 만나지 않았더냐? 대왕이시여!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늙어서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어정어정 걷는 사람을 못 보았느냐? 대왕이시여! 그런 인물들이라면 얼마든지 보았나이다. 너는 그 천사를 만나고서도 네 자신도 늙어가는 것이고, 서둘러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생각지 않았기에 오늘의 업보를 받게 되었다.

너는 병에 걸려 혼자서 눕지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보기에든 측은한 여위고 초라한 사람을 보지 않았더냐? 대왕이시여! 그런 병자라면 얼마든지 보았나이다. 너는 그 병자라는 천사를 만나고도 자기가 병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어리석었기에 이 지옥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주위에서 죽은 사람을 보지 못했더냐? 대왕이 시여! 죽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보았나이다. 너는 죽음을 경고하는 천사를 만났으면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기를 게을리 했기에 이 업보를 받게 되었다. 네 자신이 지은 일은 네 스스로가 그 과보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5. 키사코타미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유복한 가정의 며느리였는데 어느 날 끔찍이도 사랑하던 어린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슬픔을 견디다 못해 반미치광이가 되어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를 안고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죽은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이 미친 여자를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부처님의 신자가 그녀를 보고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라고 권하였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곧 아이의 주검을 안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다.

세존은 불쌍하게 여기시어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시다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인이여!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면 겨자씨가 필요하다. 마을에 가서 너댓알만 얻어 얻어 오도록 해라. 그런데, 그

번뇌

겨자씨는 아직까지 한번도 죽어 간 적이 없는 집에서만 얻어 와야 한다.”라고 하였다.

제정신이 아닌 어머니는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얻으려 했으나, 겨자씨는 많은데 아직까지 죽어서 나간 적이 없는 집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겨자씨를 구하지 못한 채, 세존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세존의 고요한 모습을 접하는 순간 그제서야 세존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식의 차디찬 주검을 땅에 묻고서 세존에게 귀의하여 제자가 되었다.

#### 제 4 절 미혹의 모습

1. 이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여 서로 가까이 지내거나 사랑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괜한 일로 서로 다투고, 지독한 해악과 괴로움 속에 놓인 채 겨우 그날 그날을 불행하게 살아간다.

신분의 고하와 부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가 돈 때문에 괴로워 한다. 없으면 없어서 괴로워 하고, 있으면 있어서 괴로워 하고, 오로지 욕망을 위해서만 마음을 쓰니 한시도 편안할 때가 없다.

부자는 재산 때문에 걱정한다.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걱정하고, 온갖 다른 소유물에 집착하고 또 집착하여 걱정만 쌓여간다. 때로는 재난을 만나 곤경에 빠질까봐 걱정하고, 도둑에게 빼앗기고 화마에 전 재산을 모조리 잃어버릴까봐, 유괴범에게 납치당할까봐 걱정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음과 재산처리 문제로 괴로워하다 목숨까지 잃게 된다. 하지만 죽음의 길은 저 혼자 가야할 뿐 따라가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족하여 괴로워 하니, 집을 갖고 싶어하고, 논밭을 갖고 싶어한다. 이와 같은 욕망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 버린다. 이 때문에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죽어 버리는 수도 있다.

모든 세상이 자신을 적대시한다고 생각하다가 이윽고 저승가는 길에 들어서지만 함께 나서는 이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멀고 먼 길을 쓸쓸히 가야 한다.

2. 또 이 세상에는 다섯 가지 악이 있다. 첫째,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넘어뜨리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속이고 서로 영켜

번뇌

으르렁 대고 있다.

둘째, 아버지와 자식, 형제, 부부, 친족들 사이에 저마다 분별하고 지켜야 할 도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오직 자기만 중시하여 욕망을 채우고, 서로 속이며 진실함이 없다.

셋째, 누구나 다 샅된 마음과 음탕한 생각으로 마음을 태우며 남녀 간의 도가 없고 그 때문에 무리를 만들어서 다투기도 하며 늘 잘못된 길만을 걷고 있다.

넷째, 서로 착한 행동을 하려 들지 않고, 서로 가르쳐가며 악한 행위를 하며, 거짓말 하며 쓸데없는 말, 욕설, 이간질 하는 말을 하며 서로 중상을 하고 있다. 서로 존경할 줄은 모르고, 자기만이 훌륭하다고 으시대며 남에게 해를 입히고도 돌아보지 않는다.

다섯째, 모든 사람들이 게을러 착한 행위를 할 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의무도 모르며, 그저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여 남을 괴롭히고 결국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3. 사람은 서로 경애하고 서로 베풀어 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만 한다. 때가 지나갈 수록 이것이 점점 커져서 큰 원한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

이 세상의 증오감은 서로 상처를 입히기는 해도 금방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독한 마음을 품고 화가 차곡차곡 쌓여 마음속 깊이 새겨져 버리면 수없이 생사를 윤회하면서 서로 해를 입히거나 죽고 죽인다.

사람은 이 애욕의 세계에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어간다. 미래의 업보를 대신하여 받아줄 사람도 없으니 자기 혼자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인과의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선과 악은 각각 그 과보가 다르니 선은 행복을 악은 재앙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업을 짊어지고, 과보가 정해진 곳을 향하여 홀로 나아간다.

4. 탐욕과 나쁜 버릇과 번뇌의 사슬에 매이면 오랜 세월이

번뇌

흘러도 낙담과 슬퍼하는 마음을 풀 수가 없다. 그러한 사슬에 빠지면 최악에 휘감겨 남과 다투게 되며, 진실한 도에 다가갈 수 없으며 사악한 행동으로 수명도 다 되기 전에 죽음을 맞고 영겁토록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자연의 도에 어긋나고 천지의 도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되며, 이 세상에서 처럼 저 세상에서도 괴로움을 시달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야말로 세속사는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의지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힘이 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런 속에서 모두가 다 쾌락의 불모가 되어 있는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이와 같은 상태가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습이며,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서 태어나서 그저 악한 일만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자연의 도리에 의하여 더욱 더 괴로운 업보를 피할 수가 없다.

오직 자기에게만 아낌없이 후하게 하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모

른다. 더우기 욕망에 물들어 모든 번뇌를 일으켜서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괴로워한다.

세상의 영화는 영속하지 않으며 속절없이 지나간다. 이 세상의 쾌락도 어느 한 가지도 영속하는 것은 없다.

6. 그러므로 사람들은 세속의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젊고 건강할 때에 도를 구하여 참된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도를 얻는 것을 제쳐놓고 무엇에 기대고 무엇에서 즐거워 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기심과 탐욕의 습관에 젖어 착한 일을 하면 행복을 얻고, 악한 일을 하면 불행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또 사람이 현세에서 행한 과보에 따라 내세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이 행한 죄과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현재 하는 행동이 내세에 미치는 중요성과 지금 겪는 고통이 전생에서 한 행동의 결과라는 이치를 알지 못한 채 오직 눈 앞에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울며불며 한탄하고 매달린

변뇌

다.

영원히 지속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덧없고 예측할 수 없이 변해간다. 사람들은 무명에 빠져 자기만에 집착하고 덧없는 것에 매달려 괴로워할 줄만 알지 바른 가르침을 듣거나 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눈앞의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돈과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다.

7. 사람들이 먼 옛날부터 고통과 미혹의 세계에 태어났고 지금도 계속 태어난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거둬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탐욕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힘써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다행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청정한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이상은 남을

번뇌

따라서 번뇌나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만의 것으로 삼지 말고 실천하여 남에게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 제 5 장 부처님의 구원

### 제 1 절 부처님의 서원

1. 이미 설한 것처럼 사람들은 끊기 어려운 번뇌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아주 먼 옛날부터 태산 같은 죄업을 짊어진 채 미혹에 미혹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비록 불성의 보물을 갖추고 있어도 번뇌를 없애고 참된 불성을 드러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은 먼 옛날에 한 사람의 보살이 되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대자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많은 서원을 세웠다. 설령 이 몸이 어떠한 괴로움의 독 속에 놓여 있어도 반드시 노력하여 꼭 이루리라 맹세하였다.

(a)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내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성불한 몸이 되어 깨달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b)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나의 광명에 한계가 있어서 세계의 끝까지 비출 수가 없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c)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나의 수명에 한계가 있어 무한한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d)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가 모두 함께 찬탄하여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e)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깊은 신심을 일으켜 나의 나라에 태어나려고 열 번이나 내 이름을 염송하여도 나의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f)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많은 공덕을 쌓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을 세워 나의 나라에 태어나려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수

부처님의 구원

명이 다 할 때 나의 정토로 그들을 영접하는 위대한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g) 비록 내가 부처가 되어도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고, 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고 열심히 회향하여, 나의 나라에 태어나려 하는데,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h)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나의 나라에 와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음의 생애에 부처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다만, 스스로의 서원에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위대한 자비의 덕을 베푸는 사람들은 예외이다.

(i)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광명에 닿아 몸도 마음도 화평해지고,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훌륭하게 되고 싶어 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j)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고 생사에 얽매에는 일이 없는 깊은 신념과 거침없는 깊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나는 지금 이와 같은 맹세를 세운다. 만약에 이 서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끝 없는 광명의 주인이 되고, 모든 나라들을 비추어 세상의 고뇌를 없애주고, 사람들을 위하여 가르침의 창고를 활짝 열어 널리 공덕의 보화를 베풀 것이다.

2.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워서 다함 없는 긴 세월에 공덕을 쌓고, 청정한 나라를 만들어, 이미 옛날에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이신 아미타 부처가 되어 지금에는 저 극락세계에 머무시며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그 나라는 맑고 안락하여 고뇌를 여의고 깨달음의 즐거움이 넘치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과 먹는 음식, 그 밖의 온갖 좋은 물건들은 사람들이 속으로 바라기만 하면 그대로 나타나다. 상쾌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보석 나무들을 스쳐 지

부처님의 구원

나가면 거룩한 가르침의 소리가 음악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가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음의 때가 씻겨 나간다.

또 그 나라에는 여러 가지 색의 연꽃이 만발하여 꽃송이마다 헤아릴 수 없는 꽃잎이 있고, 그 꽃잎마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꽃빛을 눈부시게 비추는데 그 빛마다 제각기 지혜의 가르침을 설하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이는 누구라도 평화롭고 안락해 진다.

3. 이제 시방의 모든 부처들이 무한한 빛과 끝없는 생명이신 이 부처님의 훌륭한 덕을 찬양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든 이 부처의 이름을 듣고서 찬송하고 한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그 불국토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불국토에 이르는 사람들은 모두 수명에 끝이 없고, 또 스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하겠다는 서원에 따라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이 서원들을 세움으로써 세속에 대한 집착을 떠나 무상을 깨닫는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이 감각적 세속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회향하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망상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자비심 속에서 살아가고 이 세속 생활에 속박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활이 얼마나 장애가 많고 괴로운지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집착이 없어 너와 나라는 구별도 없고 마음먹은 대로 오고 가며, 마음먹은 대로 자유롭게 나아가고 멈춘다. 그들은 부처님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 자가 용기를 얻어 굳은 믿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염송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자비를 얻으리라. 설령 이 세계를 태우고 있는 시뻘건 불 속에 뛰어 들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면 아무래도

## 부처님의 구원

이 부처님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의 도움없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4. 지금 이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로부터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부처님 나라는 아주 먼 곳에 있으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송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도 있다.

먼저 이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 속에 생각해 보면 천만의 금빛으로 빛나며, 팔만사천의 모습과 특징이 있다. 그 하나 하나의 모습이나 특징에는 팔만사천의 빛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빛은 염불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지 않고 포용하여 버리지 않는다.

이 부처님을 예배하는 자는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의 마음은 모든 중생에게 크나큰 자비를 갖고 계시니 신심을 갖고 있는 자는 물론이요 부처님의 자비를 전혀 모르거나 잊어버린 사람들까지도 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부처와 하나가 될 기회를 준다. 이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며 모든 곳에 넘

쳐있는 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은 실로 순결  
하고 행복하고 원만한 모습을 갖춘 부처인 것이요,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맑고 바른 신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부처의 마  
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5. 부처님은 무수한 변용과 화신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여러 가지로 모습을 나타내신다

부처님은 몸을 크게 나타내 보이실 때는 온 하늘에 가득하며  
모든 성좌를 감싸는 무한한 우주공간에 뻗치시고, 작게 나타나  
보이실 때는 미세한 먼지와 같이 되신다. 때로는 형상으로, 때  
로는 에너지로, 때로는 정신의 현상으로 때로는 인물로 나타내  
보이신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지극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

부처님의 구원

는 사람 앞에 반드시 나타나신다. 그 때에는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과 지혜의 화신인 대세지보살을 거느리고 염불하는 사람을 맞이하러 온다. 부처님의 화신은 모든 세계에 넘쳐 있으나, 신심을 갖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화신으로 나타내신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생각만 하여도 한없는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참된 부처님을 친견한다면 그 기쁨과 평안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6. 이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은 오직 크나큰 자비와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구한다.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 속에서는 탐냄과 성냄과 이리석은 생각을 품고, 입으로는 거짓말, 쓸데없는 말, 욕설, 이간질 하는 말을 하고, 몸으로는 살생하고 도둑질과 간음을 범하는 십악업을 행하고 죽음에 임박한 자는 그 때문에 영원히 미래에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런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날 좋은 친구가 와서 간곡히 ‘그

대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평생에 저지른 죄업을 벗을 수 없지만 그저 이 부처님의 이름만이라도 소리내어 불러보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일러준다.

이런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한 소리 한 소리 속에 한량없는 미혹의 세계로 끌고 갈 수많은 죄가 깨끗이 씻겨나간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만 이 거룩한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계속 불러서 미혹한 세계로 끌고 갈 한없는 죄까지도 영원히 없앨 수 있다면, 하물며 일심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그 공덕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자비와 지혜의 두 보살이 그의 벗이 되어주니 그는 부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 마침내 백련화 정토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 혹은 무량광무량수불께 귀의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몸에 간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제2절 청정한 국토

1. 이 무량광무량수 부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면서 진리의 광명을 끝없이 발산하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괴로움과 어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오직 즐거운 날만을 보내고 있으므로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이다.

그 나라에는 일곱 개의 보물로 되어 있는 연못이 있고, 그 속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고, 연못 밑에는 황금모래가 깔리고, 수레바퀴같은 큰 연꽃이 피어있다. 그 연꽃은 푸른 꽃에는 푸른 빛이 노란 꽃에는 노란빛이 붉은 꽃에는 붉은 빛이 흰꽃에는 흰 빛이 있어서 맑은 향기를 풍기고 있다.

또 연못의 주위에는 금, 은, 청옥, 수정의 네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누각들이 여기 저기 서있는 데, 그 누각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계단이 있다. 또 다른 장소에는 연못 위를 가로지르는 난간이 있는데, 보옥으로 장식된 막으로 둘러쳐져 있다. 또 그 사이에는 향긋한 나무들이나 꽃피는 관목이 뿅뿅이 우거진 숲이 있다.

하늘에는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대지에는 황금 빛이 영롱하게 비추며 밤낮으로 하루에 여섯 차례 하늘에서 우아한 색조를 띤 꽃잎이 비처럼 내린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화분에 담아 다른 모든 부처님의 나라로 가지고 가서 무수한 부처님들에게 공양한다.

2. 또 이 나라의 뜰에는 백조, 공작, 앵무새, 백설조, 가릉빈가 등 수많은 새들이 항상 우아하게 지저귀고 있다. 이 불국토에서 즐겁게 지저귀는 새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덕을 찬송하고 있다.

이 새들의 음악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여 부처님을 향한 믿음과 가르침을 듣는 기쁨이 더욱 새로워지고 그 나라 모든 이들과의 우정이 한결 도타워 진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불국토의 보석나무 사이를 지나면 정자의 향기로운 장막을 흔들면서 미묘한 소리를 내고 일시에 백천의 음악이 연주된다.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자연히 부처를 염송하게 되고 가르침을

부처님의 구원

생각하며 사람들의 화합을 꾀하게 된다. 그 불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과 아름다운 장식들을 갖추고 있다.

3. 어찌서 이 나라의 부처님은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 이름 지어져 있는가. 저 부처님의 빛은 한량이 없고, 시방의 나라들을 비추어 조금도 막히는 일이 없다. 또 수명도 한량이 없으므로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태어나 완전히 깨닫고 다시는 미혹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부처님의 광명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에 눈뜨는 사람들의 수는 무량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 부처의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하루 혹은 칠일 간에 걸쳐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 동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 이 부처님은 많은 성자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를 부처님의 정토로 인도하시므로 그 사람의 마음은 전도되는 일이 없이 곧 그 나라에 태어날 수가 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이 가르침을 믿는다면, 여러 부처님들에게 수호되어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